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트위터,
팔로우하면 通한다

2010

08

CONTENTS

2010. August. Vol 122



- 03 이달의 주요뉴스 트위터, 팔로우하면 通한다
- 04 인터뷰 “친환경 농산물로 생명사랑 운동을”
(하선규 부산 YWCA 이사)
- 06 위원단상 법관의 직업병 (양현주 위원)
- 07 직원마당 ‘인셉션’ 당하기 (법무상담팀 최승현)
- 08 조정후기 “그래도 미담기사였는데...” (안백수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 09 백승찬의 영화세상 한국의 스릴러 영화
- 10 이런얘기 저런얘기 휴가
- 11 기고 MBC도 트위터 한다 (MBC 뉴미디어사업팀 기형준)
- 12 위원회 소식
- 13 사건 처리현황
- 14 위원동정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발행인 권성 편집인 김용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일 2010년 8월 25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397-3114, 3000 FAX 397-3069 www.pac.or.kr 편집 (주)노마드월드와이드 인쇄 (주)부광프린팅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면 通한다



트위터(twitter)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페이스 북(face book)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트위터는 8월 현재 국내 사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서로를 팔로우(follow)*하며 사소한 일상의 스쳐가는 장면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정보나 뉴스거리는 RT(retweet)**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한 줄 트윗은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며 퍼져 나간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최신 뉴스를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시민들은 기자의 도움 없이도 직접 뉴스의 원천과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트위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주목한 기업과 단체들은 저마다 공식 트위터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트위터를 통해 고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신제품 정보를 알리는 한편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공공기관들도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론사가 뉴스를 생산하는 즉시 트위터에 올리면 독자들은 자신의 타임 라인***에서 곧바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3월 31일 공식 트위터(@pac_news)를 개설한 바 있다. 중재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안내와 간행물 정보는 물론 언론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470명의 팔로워(follower)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중재위원회로부터 제공받는다.

그러나 기업과 기관을 막론하고 트위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트위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트위터의 가장 큰 가치는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정보를 올려 놓기만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보던 것과는 다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중재위원회 트위터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팔로워들과의 활발한 관계 맺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중립기관인 중재위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중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글 : 김민정(홍보팀)

* 트위터 상에서 서로의 글을 구독하는 행위. A가 B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는 순간 A는 B를 팔로잉(following)한다고 말하며, B에 있어서 A는 팔로워(follower)가 된다.
 ** 다른 사람의 글을 받아 재송신하는 행위. 내가 팔로워한 사람의 글을 나의 팔로워들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글이 게시되는 공간

인터뷰 - 하선규 부산 YWCA 이사

“친환경 농산물로 생명

하선규

부산 YWCA 이사

- 부산 YWCA 제7대 사무총장
-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부산 YWCA 이사(현)
-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위원 (2003. 9. ~ 2005. 3.)

하선규 부산 YWCA 이사는 일찍부터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에 눈떠 유기농 식품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등 ‘생명사랑 운동’을 꾸준히 펴 오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운동의 대모이다. 지난 4년간 부산시의회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모범이 되기도 했던 하선규 이사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주>



부산시의회 의원직을 최근까지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근황은 어떠십니까?

시민단체에서 40년간 활동했고, 지난 4년 동안은 시의회에서 시정이나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 그 동안 해왔던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책을 쓰고 있고... 그와 별도로 현재 YWCA 이사로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시민운동에 오랫동안 헌신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주력하셨습니까?

‘생명사랑 운동’을 시작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 갑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짓게 하고 먹게 하는 운동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어야 땅과 공기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도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인증 농산물 제도’라는 것도 생겼고,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제도들이 많이 정책화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부터 친환경 농산물 운동을 해 오셨다니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보호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잘못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고 회복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잘못 생산된 식품으로 인해 위협받는 것이 안타까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던 중 농약과 첨가제를 쓰지 않은 식품으로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선 농약을 많이 뿌리지 않는 농가를 찾아보니 경상남도에만 10여명의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농약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은 분들이었죠. 이 분들과 함께 퇴비를 통해 땅의 힘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YWCA 장날’을 통해 판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정부에도 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만들어지는 등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 운동을”

시의원으로 계실 때에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셨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재교육 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건물에 석면 사용을 규제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같은 재해에 대비해 학교 건물에 대해 사전 진단을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도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먹이는 급식도 영양가를 계산해서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지역 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엔 의회에 들어가는 것을 무척 꺼렸었는데,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 시의회 의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때에 따라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합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회가 짚어 주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의회가 예산 편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의 책무가 중요하며, 시민들도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시의원들을 잘 뽑는 것은 물론 그들의 행동을 항상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활동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시민들은 이를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처음 한 두번만 보도하지 말고, 끝까지 언론과 의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을 역임하셨고, 평소 이해관계의 조정과 중재에 능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정의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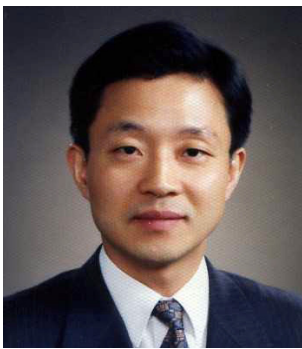
앞으로는 조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 시절에도 역시 그런 점에서 무척 보람을 느끼면서 일했습니다. 예전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 하면서 피해자와 기업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조정의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활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들어야하고, 이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사건 자체보다 감정이 악화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이 상하게 된 계기를 파악하고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자세로 임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어 분쟁이 잘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생명사랑 운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민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농토가 변하면 우리의 환경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인터뷰, 사진 / 여운규 차장(홍보팀)

법관의 직업병



양현주 위원
(서울제5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법관은 사회의 희생과 투자에 의하여 형성된 ‘공공재(公共財)’라는 견해에 찬성한다. 필자도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어둠과 빛이 있듯이 부작용도 있어서, 소위 “법관의 직업병”이란 것을 얻게 되었다.

법관은 법정이든 집무실이든 오랜 시간 꼼짝없이 앉은 채로 일하다보니, 허리 병 같은 것에 쉽게 노출된다. 젊은 때부터 미리 운동을 해두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소홀히 하던 필자 역시 허리 병이 생겨 고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소위 철인 3종이라고 하는 트라이애슬론이나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하는 체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후 다시 소를 들여놓은 꼴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서 교훈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겪어봐야 비로소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독선’병 / 법관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이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독선병이 있다. 스스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자부하지만 일단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한 후엔 좀처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병은 스스로 발견하기 쉽지 않고 주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와 부부싸움 중 드러난다. 법관은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저런 고민을 하지만 일단 결론을 내려 선언한 후에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 버리고, 자신도 그것이 옳다고 믿어버리는 데에 발병원인이 있다. 만약 그러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후에도 우왕좌왕 고민을 계속한다면 법관은 누적되는 사건의 끊임없는 저울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미쳐버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요지부동인 사람과 누가 어울리려고 할까? 법관은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판단유보’병 / 어떤 이슈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의견을 구할 때, “모른다”고 대답한다. 법관은 스스로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해보기 전까지는 진실을 밝히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있다.

하지만 근사한 대답을 기대했던 사람은 물론, 장안의 화제를 둘러싸고 그저 가벼운 의견교환을 원했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답답하게 느끼고 심지어 법관이 자신을 무시하여 곁을 주지 않는다는 오해까지 한다.

‘의심’병 / 그렇다면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법관이, 정작 다른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가? 그렇지 않다. 사건을 심리하면서 접하는 쌍방의 주장은 각각 떼어보면 매우 그럴싸하지만 어느 한 쪽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관은 일반사회생활에서조차 다른 사람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다른 복선은 없는지 늘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경계심이 많고 신중하다는 것이 덕목일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말을 사사건건 의심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사회부적응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다.

‘냉정·무표정’병 / 법관은 어떠한 자극에도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 훈련한다. 대립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결론에 이르려면, 최종판정 전에 이미 심판자가 되어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놀라운 인내심으로 평정을 유지하고 표정에 변화가 없으며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는다는 것이 법관의 덕목이지만, 사회생활에서 그보다 더 재미없는 사람은 없다.

그밖에도 늘 혜택을 받고 살다보니 베풀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는 병, 스스로 엘리트라는 자부심으로 무엇이든 잘 알고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증 등 ‘공공재’를 좀먹는 많은 직업병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초기진단도 안되며 일단 발병하면 고치기도 어렵다. “누구도 자신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위의 것들 중 몇 가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치 채신 법관의 직업병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셉션’ 당하기

귀가 얇은 사람은 피곤하다. 어떤 사람의 말이 옳다고 느끼다가도 금방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옳게 느껴진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며 움직이다 보면 ‘진짜 내 생각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휩싸이기도 한다. 나도 때로는 제법 귀가 얇다. 특히, 영화나 책을 보고 나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에 빠져 살게 된다.

나는 얼마 전 영화 <인셉션>을 봤다. 스토리를 말하자면 별 건 없다.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오기도 하고 꿈을 조작하여 암시를 통해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가상의 설정을 다룬 영화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한스 짐머 음악감독, 디카프리오 등 각 분야의 거장들이 만들었다고 하니, 이들의 명성 덕분에 관객들이 과장된 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유가 들리지 않은 상영관이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영화의 해석에 대해 관련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결말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행위 자체가 감독이 영화를 통해 꾸며놓은 ‘인셉션’에 걸려들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수준 높은 관객을 자처하는 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의견이지만, 귀가 얇은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영화 <인셉션>에서는 ‘인셉션’이라는 행위가 꽤나 부정적으로 표현된다. 타인의 무의식을 몰래 엿봐 정보를 빼내거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얘기다. 하지만 좋은 인셉션도 있는 법이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무언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이 때 인셉션은 ‘좋은 범죄’가 된다.

내가 영화나 책을 보고 소위 ‘인셉션’을 당한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중학생 즈음 <트루먼 쇼>를 본 이후로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고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소설 <1984>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었을 때에는 사회운동에 매진해야겠다는 정의로운 생각을 갖기도 했었지만, 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파란 약을 선택했기에 그 생각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외에도 배트맨과 같은 히어로나 잭 스페로우 같은 해적이 되고 싶다는 부끄러운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사소한 생각들을 통해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하루 독서 시간은 평균 9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6년 전 조사에 비해 평균 여가 시간이 17분 정도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화 감상 시간도 아마 줄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물어보면 독서나 영화감상으로 대답하는 현실과는 제법 동떨어진 조사 결과이다. 영화와 책으로부터 삶에 대한 대부분의 영감을 받는 나로서는 이 수치가 매우 아쉽다. 특히 건강관리나 외모관리 시간은 늘었다는 것을 보자 현대인들이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억지스런 서운함까지 느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 일을 하기도 바쁘고, 공부할 시간은 물론 잠 잘 시간조차 없다. 바빠서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바쁠수록 삶에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시간을 내서 하는 독서와 영화감상을 통해서 말이다. 좋은 책과 영화를 선택한다면 그 시간은 수십 배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인셉션’을 걸어본다.



최 승 현
(법무상담팀)

“그래도 미담기사였는데...”

안백수 차장(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A신문은 지난 5월 한 탈북소년이 학교에서 학급회장까지 맡으며 남한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어린이날 특집 기사를 실었다. 아울러 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할아버지 B씨가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라면서 그의 실명과 나이도 함께 보도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 신문과 각종 포털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B씨는 담당기자에서 항의하며 기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없어 기사를 내려 줄 수 없다며 B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B씨는 수년 전 가족들과 함께 탈북하다 실패해 큰아들 내외가 총살당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보위부에 끌려가 큰 고초를 겪었다. 이후 간신히 둘째 아들과 탈북에 성공한 B씨는 남한에서 쥐죽은 듯 생활했다.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면 북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덜컥 B씨 자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B씨는 결국 우리 위원회를 찾아왔다. A신문을 비롯하여 인터넷 신문과 각종 포털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인터넷 신문 및 포털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자 이들에 대한 조정 신청은 취하였다.

A신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심리가 열렸다. B씨는 가족의安危가 걸린 보도였던 만큼 언론사는 이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A신문은 조정 대상기사가 미담 형식이고 취재 당시 B씨 스스로 익명보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운운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탈북자의 실명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음을 강조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화해할 것을 권했으나, 2차에 걸친 심리에도 당사자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결국 중재부는 보도로 인해 B씨와 그의 가족이 당한 피해의 정도, 보도직후 B씨의 피해확산 방지요구를 기자가 묵살한 정황,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한동포 인권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이용했던 A신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다.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조사관은 A신문이 B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신문으로서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미담기사'를 게재하고 봉변(?)을 당한 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B씨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 그의 처지를 조금만 헤아렸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 B씨와 북에 남아 있는 그의 가족이 무탈하기를 빈다. 아울러 중재부의 조정결정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선뜻 수락한 A신문사의 경영방침에도 찬사를 보낸다.



백승찬의 영화세상

한국의 스릴러 영화

장르 영화에 취약한 한국 영화계에서도 스릴러는 특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멜로, 코미디 장르에선 작품성이 좋을 뿐 아니라 관객의 사랑까지 받은 작품이 종종 등장했다.

그러나 내세울만한 스릴러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근 3년간 한국 영화계에서 스릴러는 '우후죽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미 개봉된 작품만 해도 <핸드폰>, <거북이 달린다>, <시크릿>, <용서는 없다>, <파괴된 사나이>, <아저씨>, <악마를 보았다> 등 이 있고, 앞으로도 <부당거래>, <황해> 등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영화계 스릴러 바람의 원인은 <추격자>(2008)의 흥행이 영화 제작자와 스태프들의 '심리적 장벽'을 깬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추격자>는 흥행에 불리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으며, 감독은 검증되지 않은 신인 나홍진이었다. 그러나 <추격자>는 예상을 깨고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나홍진 감독은 순식간에 한국의 상업영화를 이끌 기대주로 자리매김했고, 주연 김윤석과 하정우도 배우로서의 '체급'을 높였다.

이후 충무로에선 "스릴러 아니면 투자가 안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스릴러에 관심은 있었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차마 시도하지 못했던 감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릴러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주연급 남자 배우들도 스릴러를 선호했다. 극한 상황에 몰린 주인공이 등장하는 스릴러는 코미디나 멜로에 비해 배우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진폭이 넓다. 배우로서는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기회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흥행과 비평 양 측면에서 호평 받은 스릴러가 드물다는 데 있다. 농촌을 배경으로 코미디 요소를 섞은 <거북이 달린다>, 원빈의 액션에 방점을 찍은 <아저씨>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스릴러가 한꺼번에 제작되다 보니 관객에게 식상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 위에서부터 <악마를 보았다>, <아저씨>, <파괴된 사나이>의 한 장면

연쇄 살인자와 그를 추적하는 전직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추격자>는 다소 잔인한 표현방식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의 스릴러도 이에 자신감을 얻은 듯 조금씩 표현 방식을 강화해왔다. 주인공이 부검의인 <용서는 없다>에서는 시신을 부검하는 장면이 세밀하게 묘사된다. <파괴된 사나이>는 아동 납치와 학대를 소재로 했고, <아저씨>에는 장기밀매 조직이 등장한다.

8월초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개봉한 <악마를 보았다>는 잔혹한 표현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국의 상업영화가 보여 주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 영화는 한국의 상업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차레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받았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이 등급은 사실상의 상영불가에 해당한다. 제작진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정한 잔혹한 장면 일부를 재편집해 3차 심의를 넣었고, 결국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가까스로 극장에 걸릴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연쇄 살인자 경찰과 그에게 약혼자를 잃은 국정원 요원 수현의 대결을 그린다. 복수를 다짐한 수현은 경찰을 잡아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준 뒤 풀어주고, 다시 붙잡아 고통을 주는 일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수현의 고문은 차츰 강도를 높여간다.

<악마를 보았다>의 표현방식에 대한 찬반은 엇갈린다. 의미 없는 잔혹 취미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한국영화의 표현의 한계를 넓혔다는 의견이다. 상영중 관람을 포기하고 나가는 관객도 간혹 있었다.

<악마를 보았다>의 김지운 감독은 "이 영화가 엽기적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실제 연쇄 살인자는 이보다 훨씬 엽기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표현의 잔혹성에 있어서는 상업영화가 허용하는 한계에 도달한 한국의 스릴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휴가

올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찾아 휴가를 즐겼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 올해 우리나라 직장인의 10명 중 2명은 해외에서 휴가를 즐길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사회가 선진화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휴가를 제대로 즐기자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노동과 여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서로 일정한 긴장관계 하에서 상호작용을 해 왔다. 고대사회에는 노동을 천시하고 여가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리스어로 ‘노동’을 나타내는 ponos는 ‘형벌’이라는 뜻도 갖고 있으며, ‘바캉스’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vacatio는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노동관은 중세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게 되어 노동이 신성한 의무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함께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노동자들에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여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늘날과 같은 본격적인 휴가의 개념은 1950년대 미국의 산업발전과 함께 생겨났다. 세계로 급속히 전파된 휴가문화는 특히 프랑스에서 만개했는데, 연간 5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프랑스의 직장인들은 그 중 4주 정도를 여름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여름의 대도시가 텅 비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바캉스 문화가 유행했는데, 옛날 신문들을 보면 ‘분수에 넘치는 바캉스’가 ‘건전한 사회기풍을 어지럽힌다’고 질타하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휴가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에 과도한 소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다시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휴가는 결코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재생산에 기여하는 건강한 메커니즘이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자아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양극화가 심해진 요즘엔 여가생활 자체가 사치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여운규 차장(홍보팀)

국립중앙도서관



▲ 인파로 가득한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

참고자료

“여가의 역사와 여가 사회의 신화”(김문경, 2002)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임 미 숙 (정책연구팀)

죽도록 즐기기

닐 포스트먼 지음 | 굿인포메이션 | 280페이지



이 책은 20세기(1985년)에 출간돼 21세기를 언급한 것으로 뉴 미디어 시대를 예견한 매체 비평서이다. 1985년 닐 포스트먼의 책을 2006년 아들 앤드류 포스트먼이 ‘20주년 기념판’으로 재출간하였다. 21세기를 이끄는 가장 의미심장한 문화적 사실인 활자시대의 쇠퇴와 TV시대의 부상에 대한 저자의 탐구가 이어지며,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도 고스란히 적용해 볼만한 보편성을 갖고 있다.

저자 닐 포스트먼은 ‘미디어는 곧 메시지’라는 말로 유명한 마셜 맥루한과 함께 대표적인 미디어 이론학자로 꼽힌다. 맥루한이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반면 그는 미디어, 특히 TV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TV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즐거움만을 안기는 ‘쇼 비즈니스 시대’를 낳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MBC도 트위터 한다

@withMBC 트위터 운영사례



기 형 준
(iMBC 뉴미디어사업팀 대리, SNS 담당)

요즘 각종 언론 보도에서 트위터를 주제로 한 이야기는 거의 빠짐없이 나온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트위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 트랜드에 보수적인 방송사들도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선두에 MBC 방송홍보 트위터인 @withMBC(www.twitter.com/withMBC)가 있다.

@withMBC 트위터(이하 @withMBC)는 MBC 방송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MBC의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iMBC에서는 그 동안 블로그 서포터스 운영, iMBC 홈페이지를 통한 드라마 마케팅 등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했고,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라 좀 더 새롭고 신선한 접근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도구가 트위터이고, @withMBC가 탄생된 것이다. 온라인 홍보의 도구로서 트위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트위터를 통한 소통의 특징 때문이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SNS, RT(Retweet)기능을 통한 메시지 무한확장,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홍보의 도구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트위터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소통'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트위터 사용자간의 신뢰를 쌓고, 신뢰라는 연결고리 안에서 홍보가 진행되면 효과적인 정보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위터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홍보는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적절한 줄타기를 해서 소통과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트위터에서 이슈가 된 내용이 단

순히 트위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는 파워 블로거도 있는데, 이들을 통해 트위터 이슈들이 그대로 블로그 까지 확산이 되고 급기야 언론에 기사화 된다. 단순히 트위터에 글하나 썼을 뿐인데, 이 내용이 퍼지고 퍼져서 매우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트위터를 방송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7일간의 기적>에서 자원봉사를 트위터를 통해 모집한 결과, 짧은 시간에 많은 참가자가 신청해서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방송 촬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봉사에 참여한 트위터 사용자가 현지에서 직접 봉사 후기를 개인 트위터에 올리는 등, 또 다른 경로에서 자연스럽게 방송 프로그램 홍보가 진행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뉴스에 있어서도 기자가 취재에 활용될 리서치를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하면 @withMBC가 그 내용을 RT(확산)해줌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취재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모든 행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트위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업무를 진행할 때 이메일이나 전화 상으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협의했던 것에서 벗어나 오로지 트위터 공간 안에서도 이러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방송사 트위터 계정도 많이 늘었다. 2010년 1월 방송사로서는 @withMBC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지상파와 케이블 등 방송사 계정만 수십여 개에 이를 정도로 확산되었다. 트위터 사용자도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방송사가 트위터를 활용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방송을 제작하는 PD나 기자들도 점점 트위터의 유용함을 인지하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보이는 만큼, 해외의 사례처럼 트위터와 방송이 접목된 프로그램이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경과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내년 개통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민 언론피해 구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크게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조정·중재 및 위원 업무 시스템, 그룹웨어 시스템으로 나뉘어 구축되며, 시스템이 완성되면 조정·중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사건 처리 절차도 대폭 전산화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개발을 맡은 (주)한국이디에스는 지난 2일 중재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업 착수 및 진행경과 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의의 및 진행과정 등을 설명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개발사 측 민경철 차장은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조정·중재사건의 대폭 증가 등 대외 업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정보화에 기반한 위원회 내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명칭 공모 과정 등을 거쳐 올 12월 중순에 개발이 완료되며,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1월 개통될 예정이다.

인턴십 프로그램 성황

방학을 이용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이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16일 20명의 학생들로 처음 시작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이후 8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약 24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강의를 경청하고, 실제로 심리가 이루어지는 심리실 등을 견학하며 언론피해구제의 현장을 몸소 느낀 후 중재위원회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았다. 중재위원회 김윤정 차장(교육팀)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에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법학전문대학원생 4명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중재위원회에서 실무수습을 받았다. 연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각각 2명씩 참가한 이번 실무수습에서 학생들은 언론본쟁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피해자 상담, 조정·중재 및 기사심의 업무 등에 참여해 실무를 익혔다.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언론조정중재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5차 운영위원회가 9월 6일 11시 중재위원회 심리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7월말 현재 조정신청 1,522건

사건 처리현황

AUGUST. 2010 VOL. 122

조정 · 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모두 1,522건의 조정사건을 접수 · 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394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103건(동의 80건, 이의 19건, 계속 4건), 조정불성립결정 83건, 기각 76건, 취하 848건(피해구제 680건), 계류 18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1.5%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351건, 신문 323건, 방송 101건, 뉴스통신 28건, 잡지 19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7월까지 59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58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32건, 반론청구 24건, 추후청구 2건, 손해청구 1건으로 나타났다.

위 사건중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신청 건수는 조정 669건, 중재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결과별로 보면 조정성립 44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61건(동의 57건, 이의 4건), 조정불성립결정 9건, 기각 20건 취하 521건(피해구제 445건), 계류 14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6.3%로 전체 피해구제율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신청 사건은 중재결정 47건, 기각 1건이었다.

2010년 상반기 재 · 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2010년 상반기 재 · 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하여 8월 15일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선심위는 정기간행물 159개 매체를 자체 심의한 결과 총 9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제재를 받은 9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7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2건이며, 결정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7건, 주의 1건이다.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4건, 종합주간지 3건, 월간지 1건으로 나타났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1,527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48건, 타기관 안내가 142건, 재상담 예정 83건, 법적절차 안내 59건, 자체종결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608건, 일간신문 555건, 인터넷신문 522건, 방송 300건, 주간신문 231건, 뉴스통신 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모두 78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33건, 언론사 16건, 대학 9건, 기타 9건, 지자체 8건, 공사기업 3건 등이다. 7월중 인턴쉽 프로그램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모두 50명의 중 ·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

COMMITTEEMEN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강연

강미은 위원(서울제2중재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교수)은 7월 22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개최한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Young Leadership Program, YLP)'에서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알리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개발 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지닌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한법률윤리위원회

양형기준공청회에서 양형기준안 발표

강영수 위원(서울제3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 양형기준 공청회에 참석해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법변호사회

미주 한인변호사회와 자매결연

경기중앙지방법변호사회 회장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 사진 왼쪽)은 지난 5일 미국 OC수피리어 법원에서 오랜 지카운티 한인변호사회(회장 박호엘)와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위 위원은 "한미 FTA가 체결 이후의 활발한 교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양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해 이를 실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金容玉의 세상읽기 上·下」 출간

김용욱 위원(광주중재부, 전 전남일보 주필)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전남일보와 광주일보에 머물면서 쓴 443편의 글을 엮어 만든 칼럼집 「金容玉의 세상읽기」(상, 하 2권)를 출간했다.



‘언우회’ 통영 워크숍

경남중재부 전·현직 중재위원 모임인 ‘언우회’는 지난 21일 통영에서 회원간 단합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회칙 제정 등을 논의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